

## 여대생들의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기대치와 만족도

류재억<sup>1</sup>·서인석<sup>2</sup>·서경화<sup>3</sup>·이주희<sup>3</sup>·박혜영<sup>3</sup>·박성수<sup>1</sup>·김주한<sup>1</sup>·권영대<sup>3</sup>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성형외과학교실,<sup>1</sup> 서인석 성형외과의원,<sup>2</sup> 경희대학교 의료경영학과<sup>3</sup>

As the social common notion of aesthetic surgery had been changed and the interest of the beauty of the human being had been increased, the aesthetic surgery has rapidly increased since 1980s.

This study was purposed to analyze the relation of expectations and satisfactions of college women who are sensitive to the change of fashion about aesthetic surgery. We surveyed 193 college women by questionnaire for a month. Chi-square test and t-test were used for data analysis. As a result, we found that the more college women were interested in their own appearance, the more they had operations. Many respondents who had not experienced aesthetic surgery did not want to get an operation mainly due to fear of side-effects. The expectation before operation was higher than satisfaction after operation, especially in the case of inexperienced respondents. We concluded that some effective measure to reduce the gap between expectation and satisfaction of latent customers, and improvement of satisfaction would be needed.

**Key Word:** College woman, Aesthetic surgery, Expectation, Satisfaction

## The Expectation and Satisfaction of College Women on Aesthetic Surgery

Jae Eock Ryu, M.D.<sup>1</sup>, In Suck Suh, M.D.<sup>2</sup>,  
Kyung Hwa Seo,<sup>3</sup> Ju Hee Lee,<sup>3</sup>  
Hye Young Park,<sup>3</sup> Sung Soo Park, M.D.<sup>1</sup>,  
Joo Han Kim, M.D.<sup>1</sup>,  
Young Dae Kwon, M.D.<sup>3</sup>

<sup>1</sup>Department of Plastic & Reconstructive Surgery, College of Medicine, Hallym University, <sup>2</sup>SIS Aesthetic & Plastic Surgical Clinic,

<sup>3</sup>Department of Health Services Management, Kyunghee University, Seoul, Korea

**Address Correspondence:** Young Dae Kwon, M.D., Department of Health Services Management, Kyunghee University, #1 Hoegi-Dong, Dongdaemun-Gu, Seoul 130-701 Korea. Tel: (02) 816-0291 / Fax: (02) 961-0515 / E-mail: snukyd@khu.ac.kr

### I. 서 론

의학기술이 발달하고 경제적으로 생활이 윤택해지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한 방법으로 미를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가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물리적 사고나 선천적 기형 등에 대한 치료적 목적뿐만 아니라 개인의 만족감을 위해서 신체의 외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미용성형외과 영역의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현대인의 미에 대한 높은 관심은 산업적으로 성형수술 영역의 확장을 가져왔다. 특히 아름다움이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일종의 능력이나 자본의 영역 중 하나라는 인식이 증가하면서 성형수술에 대한 거부감이 적어지고 있다.<sup>1-3</sup>

미적 가치관이 변화하고 개인적으로 아름다움이 교육과 같은 투자의 대상 즉, 인적 자본의 하나라고 인식함에 따라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성형수술은 전 세계적으로

로 급증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92년에 전 인구의 0.5%가 성형수술을 받았고,<sup>3</sup> 미국의 경우는 2000년 일년 동안 약 1,917,739건의 미용성형수술이 시행되었다.<sup>4,5</sup>

미용성형수술이 원숙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국가의 대부분 지역에서 미용성형수술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인류는 과거에 비해 더 오래, 건강하게, 부유하게 살고 있다. 평균 수명이 늘면서 노령인구 또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는 거울에 반사된 자신의 얼굴을 보지만 그 얼굴은 우리 내부에서 느끼는 젊은 의식을 항상 반영하지는 않는다. 나이가 들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이 젊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도 미용성형의 대중화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sup>5,6</sup>

이런 경향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미용성형수술의 대중화는 젊음과 신체적 외양에 대한 사회적 압력과 가치관의 변화를 반영한 결과이다.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젊음을 유지하고, 성의 혁명이 낳은 에로티시즘, 신체 노출의 증가 등으로 나만

의 개성있는 아름다움을 추구하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성형외과를 찾는 동기가 되고 있다.<sup>6,7</sup>

사회적으로 미용성형수술이 대중화되어 가는 추세이나 지금까지 이를 사회적 시각으로 고찰한 연구가 적었으며, 특히 소비자의 기대치와 만족도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유행의 변화에 민감한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미용성형에 대한 기대와 경험률, 미용성형에 대한 기대치와 만족도와 관계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미용성형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고객 만족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 II. 연구대상 및 방법

### 가. 연구대상

2002년 5월 한 달 동안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대학교에 재학중인 여대생 2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설문지 원본 참조 p 162)를 시행하였다. 남녀공학 종합대학교 3개교 110명, 여자 종합대학교 3개교 110명, 예술대학교 1개교 20명 등 총 24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중 모든 질문에 답을 한 193명(회수율 80.4%)의 자료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 나. 연구방법

3명의 면접요원이 대상자 각자에게 사전 설명과 함께 설문지를 배포하고 대상자가 스스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내용으로는 소속, 연령, 개인 및 가족의 경제수준 등 인구, 사회적 변수, 외모에 대한 만족도와 미용성형수술의 경험 유무를 질문하였다. 미용성형수술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수술 부위, 미용성형수술 전 수술 부위의 자기평가, 미용성형수술 전 기대치와 미용성형수술 후 실제 만족도에 관해 질문하였다. 미용성형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성형수술을 원하는지의 여부, 수술을 원하는 신체부위와 그 이유, 수술 부위의 현재 평가 점수, 수술전 기대치와 예측 만족도 등에 관해 질문하였다. 자기평가 점수, 기대치와 만족도는 10점 척도로 나타내도록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EXCEL과 SPSS10.0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인구, 사회적 변수와 미용성형 수술 경험 여부 사이의 관련성을 검정하기 위해서 Chi-square test를 사용하였고, 기대치와 수술후 만족도의 비교는 t-test 쌍체 비교를 사용하였다.

## III. 결 과

### 가. 인구학적 특성

남녀공학대학의 여학생 95명과 여자대학의 학생 98명으로 비슷한 분포로 나누어 조사하였고, 특정 전공 계열에 지나치게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연계 48명(24.5%), 인문계 95명(49.5%)과 예체능계 50명(25.9%)로 각 계열별 비율이 적정하도록 고려하였다(Table I). 연령은 최저 18세, 최고 26세, 평균 20.9세였다.

### 나. 외모에 대한 관심

외모에 대한 관심 정도는 '관심이 있다'와 '매우 관심이 많다'가 66.9%로 전반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Table II). 대학 종류별로는 남녀공학의 여대생이 더 관심이 많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계열별로는 예체능계가 관심이 있는 응답자의 비중이 가장 컸고, 이공계와 인문사회계열은 비슷한 정도의 관심을 보였다.

### 다. 미용성형 수술 경험 유무

#### 1) 인구·사회적 특성별 미용성형수술 경험

응답자 193명 중 미용성형수술을 경험한 사람은 24명(12.4%),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169명(87.6%)이었다. 인구, 사회적 특성별로 미용성형수술 경험 여부를 분석한 결과, 대학구분, 개인적 및 가계 경제수준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외모에 대한 관심 정도와 전공 계열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III, IV).

외모에 대한 관심에 따른 미용성형 수술 여부의 빈도 분석 결과, 관심의 정도가 클수록 수술 경험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외모에 대한 관심 정도에 따른 수술 경험률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 square=20.7,  $p <$

0.05)(Table III).

대학별로는 여자대학교를 다니는 응답자들의 수술 경험률이 15.3%로 남녀공학에 다니는 응답자의 9.4%보다 더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고, 전공계열별로는 예체능계가 22.0%로 다른 계열보다 수술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이 더 많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 < 0.05$ ) (Table IV).

#### 2) 미용성형수술 부위

미용성형수술을 경험한 여대생들이 수술을 받은 부위는 눈이 20명(83.3%)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 코, 박피술이 각각 12.5%, 4.2%였다.

#### 3) 미용성형수술 미경험자의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태도

미용성형수술을 경험하지 않은 여대생 169명을 대상으로 향후 미용성형수술을 원하는지의 여부를 물어본 결과, 무응답자 2명을 제외한 167명중 수술을 받고 싶어하는 경우가 37.1%였다 (Table VI). 대학별로는 여자대학교를 다니는 여대생의 미용성형수술을 원하는 비율이 43.2%로 남녀공학대학 여대생의 31.4%보다 더 많았으나 유의하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전공계열별로도 유의한 수준의 차이는 나지 않았으나 예체능계가 46.2%로 가장 많았고, 인문사회계열이 31.8%로 가장 적었다.

(설문지 원본 첨부)

## 여대생들의 미용성형에 대한 기대치와 만족도 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경희대학교 의료경영학과 학생들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전공과목인 '의료와 사회'라는 과목과 관련하여 연구 논문을 목적으로 '여대생들의 미용성형에 관한 기대치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은 미용성형에 대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기대수준과 미용성형 시술 이후, 얻게 될 만족의 정도에 대한 것입니다.

학술적 용도로만 사용될 뿐 조사대상자 개인에게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으므로 설문에 대한 여러분의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설문에 응답하는 소요시간은 약 2분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경희대학교 의료경영학과 박혜영, 서경화, 이주희

### ■ 설문지에 V표시를 해주세요

⇒용어 정의: 『미용성형』이란 병적인 것을 취급하지 않는 외과적 수술로 여성의 경우 모습을 아름답게 수정하기 위한 하나의 교정술이다. 발육이 대개 정지되는 18세 이상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 설문은 다음 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

1. 외모에 어느정도 관심이 있으십니까?

- 1) 매우 관심이 많다                      2) 관심이 많다                      3) 보통이다
- 4) 관심이 없다                              5) 매우 관심이 없다

2. 미용성형수술의 경험이 있습니까?

- 1) 예 (3번으로)                              2) 아니오 (4번으로)

[ 3 번 문항 ]

3-1. 미용성형의 경험이 있다면 어느 부위를 수술했습니까?  
(미용성형의 경험이 다수인 경우 가장 최근의 한가지 수술에 대하여)

- 1) 눈    2) 코    3) 입술    4) 안면 윤곽 교정
- 5) 주름 제거술                              6) 지방흡입술                              7) 박피술    8) 가슴성형
- 9) 기타 (    )

3-2. 미용성형 전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고 있었습니까?

- 1) 예    2) 아니오

3-3. 미용성형 전 자신의 시술부위 점수는?  
~~.....~~

3-4. 미용성형 전 성형의 결과를 어느 정도 기대했습니까?  
~~.....~~

3-5. 미용성형 후 자신의 시술부위 점수는?  
~~.....~~

(밖에 나가기 싫다)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다)

⇒ 7번 문항으로

4. 미용성형의 경험이 없으시다면 성형하기를 원하십니까?

- 1) 예 (5번으로)                              2) 아니오 (6번으로)



8. 자신이 속한 학부, 학과는?

1) 자연계

2) 인문계

3) 예체능

9. 자신의 나이는?

만     세

10. 자신의 경제수준은? (한달용돈)

1) 10만원미만

2) 10만원이상 - 20만원미만

3) 20만원이상 - 30만원미만

4) 30만원이상

11. 집안의 경제수준은? (월수입기준)

1) 100만원 미만

2) 100만원 이상 - 200만원 이하

3) 2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하

4) 300만원 이상 - 400만원 이하

5) 400만원 이상 - 500만원 이하

6) 500만원 이상

미용성형수술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미용성형수술을 원하는 응답자에게 수술 받기를 원하는 부위를 물어보았다. 원하는 부위는 미용성형수술을 경험한 응답자와 마찬가지로 눈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코와 박피술의 순이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안면윤곽, 지방흡입 및 종아리 알통제거수술, 유방성형, 제모 등이 있었다(Table VII).

향후 미용성형수술을 받기 원하는 응답자 모두에게 미용성형수술을 하고 싶어하는 이유를 물어본 결과, '미적 수준 향상'이 38.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자기만족'과 '콤플렉스 해소'가 중요한 이유로 나타났다(Table VIII).

미용성형수술을 원하지 않는 응답자 모두에게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수술후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이 41명(29.3%)으로 가장 많았다. 부작용은 수술로 인한 후유증과 원하는 결과와 다른 불만족한 수술 결과를 포함한 개념으로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기타 의견으로는 '수술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껴서', '별로 관심 없다' 등이 있었다(Table IX).

#### 라.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기대치와 만족도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기대치는 미용성형수술 경험자의 경우는 수술전 수술에 대해 기대했던 정도를 나타내는 점수이며, 미경험자 중 향후 수술 욕구를 가진 응답자의 경우에는 수술을 할 경우의 수술전 기대 점수를 의미한다. 만족도는 수술 경험자가 실제로 미용성형수술을 했을 때의 수술 결과에 대한 만족점수(수술 결과에 대한 '인지점수'가 정확한 표현이나 이해를 돕기 위해 만족점수로 표현함)와 미경험자 중 수술 욕구를 가진 응답자가 향후 수술하였을 때의 수술결과에 대한 예상 만족점수를 의미한다.

기대치와 만족도를 10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미용성형수술을 경험한 사람의 기대 점수는 평균 8.25점, 경험



하지 않은 사람의 기대 점수는 8.82점으로 미용성형수술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기대치가 더 높았다(Table X). 또, 수술 결과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 미용성형수술을 경험한 사람은 7.75점,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8점으로 만족도 역시 수술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높았다.

미용성형수술 경험 유무와 상관없이 수술전 기대치가 수술후 만족도보다 컸다(T-value=3.94,  $p < 0.05$ ). 기대치와 만족도의 차이는 수술 경험이 없는 경우가 더 크게 나타났다. 미용성형수술을 경험한 사람의 경우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미용성형수술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그 차이가 유의하였다(T-value=4.45,  $p < 0.05$ ).

### III. 고 찰

삶의 가치기준이 다양하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치료 목적보다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과거에 비해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면서 미용성형수술이 보편화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92년에 412,901명이 미용성형수술을 받았고, 2001년에는 1992년에 비해 4.64배로 증가하였다는 보고가 미국성형외과학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 바 있다.<sup>4</sup>

본 연구는 취업, 콤플렉스 해소, 미모관리 등의 이유로 성형을 많이 하고 있을 거라는 가정 하에 20대 여성 중 여대생을 대상으로 가설을 세우고 미용성형수술에 대해 기대하는 정도와 이에 따른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저자들이 조사한 여대생들의 미용성형수술 경험률은 193명 중 24명으로 12.4%였는데, 이는 한국 성인 10명 중 1명 꼴로 성형수술을 받는다는 미국 시사주간지 'TIME'의 보도와 비슷한 결과였다.<sup>8</sup>

미용성형수술 미경험자 중 수술을 원하는 응답자가 37.1%로 실제 수술 경험률보다 훨씬 많았지만 수술을 원치 않는 응답자가 62.9%로 원하는 응답자보다 더 많았다. 수술을 원하지 않는 이유 중에서는 '수술의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많았다. 안재훈의 연구<sup>3</sup>에서는 '수술 결과의 불확실'이 미용성형수술을 하기 어려운 가장 주요한 이유로 나타난 것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수술 부작용의 발생과 결과의 불확실성에 대한 사전 설득과 인식 변화가 수술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준 것으

로 향후 성형외과 전문의들은 미용성형수술의 안전성에 초점을 두고 더욱 연구하고 학문과 기술을 개발해야 할 것이며, 수술전 환자에 대한 두려움 등을 해소 해줄 수 있는 분위기 변화에 더욱 연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미용성형수술 경험률에 있어 전공계열별로는 예체능계가 21.1%로 가장 높았고, 미경험자 중 향후 수술을 받기 원하는 비율도 예체능계가 46.2%로 가장 높았다. 이는 전공 특성상 예체능계 여대생들이 외모를 중시하고 관심의 정도가 높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남녀공학의 여학생이 여자대학의 학생보다 미용성형에 관심도가 유의한 차이가 없지만 약간 높은 이유도 이성에 대한 인식과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이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조사 결과 여대생들 중 미용성형수술을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았으나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사람의 경우 모두 눈, 코, 안면윤곽, 가슴성형의 순으로 수술을 받았거나 향후 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연구<sup>9</sup>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미용성형수술 경험자와 미경험자 모두 미용성형 수술 후 만족도 평균 점수가 수술전 기대치 점수의 평균보다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수술후의 만족도가 기대한 점수보다 낮다는 점에 주목하여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방안의 하나로 성형 수술에 대한 기술 연구가 더욱 개발되고 부작용 등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홍보가 필요하며, 수술 자체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안을 겪는 환자들을 위한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환자들이 미용성형수술 전, 중, 후에 정신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경험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실제로 최근의 연구결과<sup>9</sup>는 심리적인 불안이 육체적인 합병증과 같은 비율 혹은 더 많은 비율로 발생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환자들의 불안에 대한 대책으로 미용성형수술 후 동료 환자들과의 접촉을 증가시키는 방안은 수술후의 치료에 대한 정서적인 행복과 만족감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sup>9-12</sup>

저자들이 조사한 기대치와 만족도에서 기대치가 만족도보다 큰 것은 일반인들의 성형에 대한 잘못된 상식과 과대광고와 부정확한 인터넷 건강정보의 확산에 의한 지나친 환상으로 기대치가 지나치게 높은 반면 미용성형기술이나 연구의 발달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려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다는 답을 얻었다. 또한 의사들은 환

자의 기대치를 만족시켜 준다기보다 수술전에 비해 수술후의 결과 점수가 더 높아진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수술을 통해 외모가 '개선'됐다는 그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여 일반인들과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통증,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한 충분한 사전 상담 실시, 안락하고 편안한 병원 분위기 조성을 통한 수술 전 불안감의 감소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V. 결 론

저자들이 조사한 여대생들은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많고,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관심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술후 부작용 발생에 대한 우려 때문에 수술 받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전반적으로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기대치보다 수술후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수술 미경험자에서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미용성형수술의 잠재 고객을 대상으로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거부감과 우려를 줄여주고,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방안으로 성형외과 전문의들은 수술의 기술, 부작용을 더욱 연구하고, 두려움으로 불안을 겪는 환자들을 위한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유행에 민감하고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은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기대치와 만족도를 조사하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밝혔다. 이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성형외과 의사의 인식과 태도에 대한 조사를 체계적으로 시행하지 못하여 만족도 향상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리고 수술 경험자의 숫자가 적어서 이를 기초로 한 분석이 통계적으로 충분한 의사를 지니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향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REFERENCES

1. 박찬석: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태도조사: 대학생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 2001
2. Pertshuck M: Psychological Considerations In Interface

- Surgery. *Clin Plast Surg* 18: 11, 1991
3. 안재훈, 김용운, 백무현, 김승홍, 민대홍, 이영식, 이철원: 성형수술 환자들의 정신의학적 측면에 관한 연구(II). *대한성형외과학회지* 20: 945, 1993
  4. The American Society of Plastic Surgeons: 2001 National Plastic Surgery Statistics. <http://www.plasticsurgery.org>
  5. Rohrich RJ: The increasing popularity of cosmetic surgery procedures: a look at statistics in plastic surgery. *Plast Reconstr Surg* 106: 1363, 2000
  6. 박운희, 이정섭: 성형외과 환자의 경험에 관한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9: 64, 2000
  7. 방사익, 김형준, 송영한, 문구현, 이태섭, 정인원, 이상익, 신철진, 홍주봉, 지경환, 한미경, 이원중, 유재호: 수술환자의 심리적 특성과 미용수술이 이에 미치는 영향.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지* 7: 1, 2001
  8. 데일리팝 [http://dailymedi.com/cgi-bin/search\\_view.cgi?id=19687&keyword=성형수술](http://dailymedi.com/cgi-bin/search_view.cgi?id=19687&keyword=성형수술)
  9. Kulik JA, Shelby D, Cooper RN: The effects of fellow patients on the emotional well-being and satisfaction with care of postoperative cosmetic surgery patients. *Plast Reconstr Surg* 106: 1407, 2000
  10. Wengle HP: The psychology of cosmetic surgery: a critical overview of the literature 1960-1982-Part I. *Ann Plast Surg* 16: 435, 1986
  11. 한상준, 안재훈, 백무현, 김승홍, 민대홍, 이영식, 이철원: 성형수술 환자들의 정신의학적 측면에 관한 연구(I). *대한성형외과학회지* 18: 1015, 1991
  12. 변금순: 미용성형수술이 환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 2001